

## 어린이책 출판의 새 장 여는 젊은 기획자들

국내 창작물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 발휘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기획에 승부 걸어

어린이책 출판에서 기획자들의 역할은 영화감독과 비슷하다. 책의 구상, 제작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을 머리 속에 넣어두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양질의 기획도서가 어린이책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흥미와 자극적인 주제로 승부하던 과거와 달리 삶에 대한 성찰과 유익한 정보를 담은 도서가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모두 기획자들의 숨은 노력 덕택이다.

바야흐로 어린이책 르네상스 시대다. 장르의 폭도 넓고 다채로워졌다. 1997년 이후 단행본 기획서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계명작선과 위인전의 카르텔이 허물어졌다. 전후 독일이나 프랑스의 고전동화들, 최근 외국에서 히트한 시리즈 번역물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이에 질세라 국내작가들의 창작동화가 줄을 잇대면서 독창성, 전문성, 현장성이 어린이책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출판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과당 경쟁을 벌이다보니 내용의 질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고집 센 출판사들이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저마다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출판사 뒤에는 반드시 역량 있는 기획자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어린이 출판에서 기획자의 '입김'은 아주 센 편이다. 그들의 역할이 어떤 주제의 책을 낼지 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창작 및 편집 디자인과 홍보 이벤트의 전과정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자의 마인드와 작업스타일은 그래서 우리 어린이책의 수준과 열의를 재는 가늠자가 된다.

### 국내 창작동화 분야의 기획자들

'사계절' '보리' '우리교육'은 국내창작물 기획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출판사다. 사계절의 최옥미 아동·청소년 팀장(36)은 출판사

의 사회과학적 성향을 어린이책 분야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독심있는 기획자로 평가받는다. 최팀장이 어린이책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1996년 창작동화 시장은 이곳저곳 '구멍' 투성이었다. '창비'와 '산하'가 초등학교 고학년 동화에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앞뒤는 공백 상태였다. 최팀장이 맨 먼저 팔을 걷어부친 일은 '저학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동화 발간이었다. "그림책을 통해 '읽기'에 익숙해질 만하면 맥이 끊어지고, 동화책에 맛을 들이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책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풍토가 안타까웠"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해줄 출판구조가 절실했다"고 기획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청소년 문고의 경우 시장성이 있겠냐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의외로 마니아층이 생겨날 만큼 반응이 좋았다.

유아용 그림책과 창작동화를 펴내는 우리교육에는 송주호 아동팀장(33)이 있다. 송팀장은 어린이 출판계의 '청일점'으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때문에 기획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송팀장은 국내 출판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기획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모들이 전질로 들여놓고 읽히는 위인전류에 불만이 많았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판에 박힌 인물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출판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인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송팀장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인물이야기> 시리즈는 평생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삶을 취재해 소개한다. 그는 "본인을 직접 만나서 생생한 육성을 녹취하고, 장점뿐 아니라 인간적인 허물도 빠뜨리지 않고 담는 것"이 이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자평한다. 최근 출간된 <아름다운 농부 원경선 이야기>(송재찬)는 '풀무원' 농장을 열어 유기농법을 고집하며 평생 바른 농사를 위해 살아온 원경선씨의 삶을 소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들판, 숲, 논, 습지, 비무장지대 등을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자연관찰 그림일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연을 알리는 일은 보리가 일찌감치 선풍을 잡았다. 이태수씨가 그린 <세밀화 그림책> 시리즈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보리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애정있게 들여다보는 책들을 펴낸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쓰고 그린 책> 시리즈는 <새롭이와 함께 일기 쓰기>(이새롭)를 시작으로 총 6권이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쓴 일기집이다. 신옥희 편집장(39)은 "1990년대에 학교를 다닌 아이들의 구체적 일상과 고민거리를 육성 그대로 실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이 또래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솔직한 세계를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높은 점수를 매겼다.

신편집장은 저자들을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에서 기획자의 진면목이 발휘된다고 말한다. 보리는 특히 '교사집단'과 친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들...> 시리즈는 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획물이었다. <겨레아동문학선집>(전10권) 또한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겨레문학연구회'의 성과물로 1920년대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근대아동문학 유산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기획자의 고유한 임무다. 출판사 내부에서 신인상을 운영하고,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다니는 일은 '발견'의 설렘을 선사하는 기획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획자는 사계절의 최첨장이다. 그는 《오줌 멀리싸기 시합》(장수경), 《봄바람》(박상률),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김병렬) 등 아동작가로서 검증받지 않은 작가들의 처녀작을 출판했다. 작가와 밀고 당기며, 고쳐쓰게 하는 등 '악역'을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신한 주제를 개발하고, 작가와 편집자 상호간 의사소통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첨장은 자부심을 느낀다.

#### 지식책 분야에도 뛰어들어

작년에 어린이책 출판에 뛰어든 '신진세력' 아이세움은 황현숙 과학출판팀 차장(39)과 홍재철 만화출판팀 과장(35)이 이끌어간다. <상상력을 키우는 만화그림책> 시리즈와 <아이과학> 시리즈가 그들의 작품이다. <아이과학> 시리즈의 특징은 국내 학자들로만 필진이 구성된 것. 황차장은 "어린이책이 창작물에 너무 치우치고 일반 교양서들은 번역물로 채워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 번역서는 수준이 높아 초등학교용으로 부적합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에게 과학적 교양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 우리 교육 수준과 어법에 능숙한 국내 학자들에 주목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홍과장과 함께 <...만화그림책> 시리즈를 공동기획한 정희수씨(32)는 "전문일률적인 기존의 사각들과 말풍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내용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신개념의 만화를 추구해나간다"고 시리즈의 방향을 설명한다. 첫권으로 나온 《못말리는 종이괴물》(루이 트로앵, 김미선)의 경우 "화려한 색채와 다채로



어린이책 시장을 전진 위주에서 단행본으로 바꾸고, 어린이책의 지평과 수준을 넓히고 고양시킨 데는 기획자들의 공이 크다. 왼쪽부터 최영미 팀장, 송주호 팀장, 신숙희 편집장, 엄혜숙씨.

운 일러스트레이션이 고르게 배합된 유럽의 고급 만화그림책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알린 경우"라고 자평한다.

시공주니어 사업부의 이광자 편집장(35)은 의 국책 내는 출판사라고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태도에 불만을 표시한다. 이편집장이 최근 기획한 <네버랜드 클래식> 시리즈의 첫권으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루이스 캐럴, 손영미)를 보면 오히려 번역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책은 그 동안 몇몇 출판사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 대부분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원서의 느낌을 차이를 컸다. 번역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 책을 오역 없이 완역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공사는 이 시리즈 외의 번역물들은 줄여나가고 있다. 번역서에서 방향을 선회했다기보다는 알찬 국내 창작물을 퍼내기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이편집장은 말한다. 준비기간 중에 그는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예전처럼 작가들의 투고원고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모니터 자료를 이용해 직접 필자를 찾겠다는 것. 둘째, 그림작가들에게 좀더 나은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절 계약을 인세제로 돌릴 것 등이다.

####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는 프리랜서 기획자들

프리랜서 기획자들을 빼놓고 어린이책 출판의 기획동향을 말할 수는 없다. 번역과 기획을 같이 하는 '햇살과나무꾼', 유아용 도서를 폭넓게 기획하고 집필하는 '우리누리', 어린이책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동호인 소식지 <꿀밤나무>도 펴내는 '여백', 그리고 베테랑 경력자들이 글도 쓰고 기획도 하는 '보물섬' 등이 대표적인 프리랜서 집단이다. 이들 기획자들은 대부분 겸업이나 일인 삼역을 자임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어린이책 출판이 영역별로

전문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고, 기획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다.

7년차 프리랜서로 어린이책을 기획, 집필, 번역하는 엄혜숙씨(40)는 그동안 월간지, 학습물, 단행본 등 건드리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폭넓게 활동해왔다. 그는 프리랜서 기획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기획자로서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 그리고 돈벌이를 의식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소화하다보니 질적인 발전이 없다. 게다가 오랜 기획 경력과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이 없으면 일감을 구하기도 힘들다."

어린이책 출판에서 프리랜서 기획의 위상이 불투명한 것은 '기획'이 직접 번역하고 쓰는 것과는 달리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무형노동이라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계절의 최옥미 팀장은 "어린이책 기획자는 단순히 책을 만드는 출판업 종사자가 아니라 어린이 문화 창조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책을 서점에 내보낸 후에도 끊임없이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책을 주제로 한 그림전시회, 독후감대회, 현장답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어린이와 학부모, 출판사가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리의 신편집장은 막연히 좋은 작품을 고른다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읽고 싶어하는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기획의 맨 앞자리에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책 기획자는 필연적으로 어린이 연구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강성민 기자